

환경미화원 어머니 위한 청원



▲ 중국 광둥성 둥관시 다량전에서 한 환경미화원이 거리를 청소하고 있다(왼쪽). 가로등 소등시간을 조정하고 있는 다량전 관계 직원들(오른쪽). 사진=chinadaily.com

환경 미화원으로 일하는 여성의 아들이 올린 효심 가득한 청원이 화제다.

매일 새벽 4시 30분부터 거리를 청소하는 50대 정 씨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밝힌 하오 씨는 지난 10일 중국판 청원 서비스 '12345'에 "우리 엄마는 거리를 닦는 청소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했다.

그는 "엄마는 매일 새벽 4시 30분부터 광둥성 둥관시 다량전 일대의 거리 청소를 시작한다."면서 "다행스럽게도 이 시간에는 아직 야간 가로등이 거리를 밝히고 있어서 근무까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 하지만 매일 아침 5시 25분만 되면 거리의 모든 등과 조명이 꺼진다."고 적었다. 이어 "5시 25분에 가로등은 모두 소등되지만 사실상 1년 내내 이 시간대의 거리는 매우 어두워서 엄마가 청소를 위해 이동하는 길은 항상 어둡고 위험하다."면서 "소등하는 시간을 단 15분만 더 연장해주면 엄마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우리 가족들도 모두 안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오 씨의 청원을 전달받은 당국은 가로등 소등 시간과 환경 점검에 나서 도심 구간에 설치된 가로등의 소등 시간이 실제 날이 밝는 시간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가로등 점등 시간을 매일 저녁 7시 15분부터 이튿날 오전 5시 45분까지로 조정키로 했다.

사연을 접한 한 네티즌은 "아들의 효심이 많은 환경미화원의 길을 밝혀줬다. 따뜻한 마음이 길을 밝히는 작은 시작이 된 것"이라면서 응원을 보냈다.

세입자 떠난 아파트에 맥주캔만 8,000개

영국 햄프셔주 청소전문업체에서 일하는 프레디 길리엄-웹(29)은 최근 집주인의 의뢰로 침실 2개짜리 아파트 청소가 나섰다.

1년간 세입자가 썼다는 집 상태는 처참했다. 거실엔 곰팡이 핀 음식이 나뒹굴었고, 부엌은 음식물 쓰레기로 가득했다. 특히 맥주캔이 셀 수도 없이 많았다. 웹은 "맥주캔이 너무 많아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한 8,000개 정도를 치운 것 같다."고 말했다. 화장실 상태는 더 심각했다. 온갖 배설물과 휴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웹은 "화장실 쓰레기가 1m 넘게 산을 이루고 있었다. 너무 역겨웠고, 수십 번이나 구토했다."고 전했다.

집을 치우는 데는 하루 10시간씩 꼬박 3일이 걸렸다. 그는 "정리에 끝이 없었다. 첫날에는 치운 게 티도 나지 않았다. 청소뿐만 아니라 하수도 관리, 건축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웬만한 더러움에는 이골이 났지만 이번엔 나도 참기 힘들었다."고 몸서리를 쳤다.

세입자는 지저분하게 사는 모습을 주인에게 들키고



▲ 사진=metro.co.uk

싶지 않아 물도 내려가지 않는 화장실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집주인이 밀린 1년 치 임대료를 독촉하자 자취를 감추었다. 집을 떠나기 전 세입자는 "집이 좀 엉망일 수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웹은 "상당량의 맥주캔을 볼 때 세입자가 우울증에 시달렸거나 알코올중독 등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으로 면죄부를 얻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학 스펙 만들려다 사망한 학생

중국의 10대 학생이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되는 스펙을 만들고자 사막을 여행하는 캠프에 참석했다 숨을 거두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16세 소년 A군은 지난 7월 말 몽골에 있는 텡거리 사막 횡단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텡거리 사막은 모래층의 깊이가 100m에 달해 '사막의 원조'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10일 동안 열린 캠프의 목적은 학생들의 단력을 키우고 동시에 외국 대학에 지원할 때 필요한 스펙을 쌓기 위한 것이었다. 참가자는 16~17세의 학생 8명이였다.

학생들은 20kg에 달하는 배낭을 짊어지고, 그늘 한 줄 없는 사막을 하루에 18km씩 걸었다. 당시 현지 온도는 50°C를 넘는 상태였다. 사망한 A군은 사구 꼭대기에 올랐다가 정신을 잃고 굴러 떨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지만, 현장에 있던 캠프 인솔자는 하이킹을 중단하지 않았다. 사막에서는 전화 신호가 잡히지 않아 구조대를 부를 수 없었기 때문이다. A군이 두 번



▲ 중국 텡거리 사막. 사진=scmp.com

나 정신을 잃은 후에야 인솔자가 직접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나가 구조대에 연락했고, 1시간 후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A군이 사망한 후였다.

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은 "캠프에 온 학생 대부분은 야외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외국 대학에 지원할 때 점수를 더 많이 받고 싶어서 참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캠프 인솔자는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100% HAND WASH **TRUCK / RV / CAR**
 왁스 · 스팀 세차 · 인테리어 청소



종목

TRUCK, RV, BUS, OVERSIZE, Fork LIFT, AUTO CARRIER, BOAT, ETC

서비스

WASH, STEAM, POLISH, WAX, INTERIOR DETAIL

특별 서비스

D.O.T. 서비스, PARKING SPOT(파킹장 임대)
 AUTO DEALER(자동차 판매상) 문의환영
 TRUCKING(운송 회사) 문의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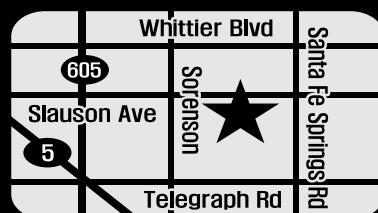


KING TRUCK WASH

OPEN HOUR : MON-SAT 6am - 6pm

562.945.4826

mwleela@hotmail.com
 www.kingtruckwash.com



12500 E. Slauson Ave., G-2,
 Santa Fe Springs, CA 90670